

장학재단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 없도록”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2019 국가장학금지원 계획

전년보다 2만5000명 증가
69만명 절반이상 지원 받아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꼴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값 등록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66만5000명에서 올해 69만명으로 2만5000명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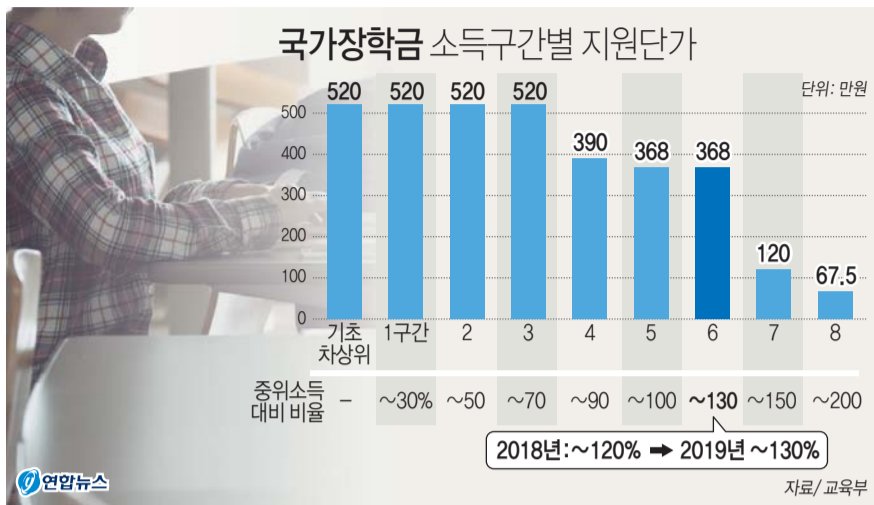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 형태의 장학금이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소득 순으로 1~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 중,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다.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전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3구간)까지는 최대 금액인 연간 520만 원을 받는다. 4구간(중위소득의 70~90%)은 연 390만원, 5~6구간(중위소득의 90~130%)은 연 368만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중위소득 대비 기준을 기존 120%에서 130%로 늘려 대상자를 확대했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지난해 연간 12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보다 3배 많은



368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해는 66만5000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보다 2만5000명 증가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050억원으로 전년보다 795억원 줄었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이 1.8%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017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12만명으로 1인당 평균 319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인원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1인당 장학금 액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 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 1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데,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를 13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별도 신

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이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가 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인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6월경 나오는 결과를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 신·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내달 6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8개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주민편의시설, 학교 안으로”

교육부-문체부 학교시설 업무협약
신·개축 학교에 도서관·체육센터 등
편의시설 설치하고 일반인에 개방



지난 5일 오후 제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온 학생들이 연날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축 또는 개축되는 학교 시설에 도서관이나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체육·예술·문화시설이나 주민센터,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경기도양시신일중학교에서 학교시설을 복합화해 문화·예술·체육 생활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고등학교 이하 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신·개축 학교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문체부, 행안부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연간 신축학교는 70~100곳, 개축 학교는 100곳 정도로 매년 총 200개 이내 학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양시 신일중학교의 경우

2017년 문체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가 함께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인 ‘신일스포츠펀드’를 설립해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아울러 기존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하는 등 학교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체육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학교 시설이 개방되는데 따라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보다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체육관은 물론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를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종합교육기업 장원교육이 지난달 3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 열매)에 3억 원 상당의 도서와 교구를 기증했다. /장원교육

“학생이 선생님에 ○○쌤, 학교 자원으로 하세요”

서울시교육청 조직문화 혁신 시행

‘사제 간 호칭제’ 논란에 자율화로

학생이 선생님을 ‘○○쌤’으로 부르거나, 여름철 반바지 착용과 연가 사용, 스탠딩회의 등 서울시교육청이 예고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이 학교나 기관별로 자율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일선 학교 등에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 10개 과제 시행 공문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해당 방안을 각 기관별 자율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직문화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시행 안내 공문을 8일 각 기관과 학교에 전달한다.

각 기관 자율 시행 방침은 시교육청이 내놓은 조직문화 혁신방안 10개 과제에 대해 12개 기관과 일선 학교, 교원 단체, 공무원노조 등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해졌다.

일부에서 논란이 됐던 ‘사제 간 호칭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복장자율화와 연가사용 활성화 방안은 보완 요청이 있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평적 호칭제와 스탠딩 회의와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학교 자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관행적인 의전문화 폐지는 적극 시행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평적 호칭제를 상호 존중 호칭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냈다.

시교육청은 “실현 가능한 과제에 대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되었으나 일부 예시가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학교와 여러 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 1월 28일 시행한 공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과제 중 하나인 수평적 호칭은 ‘사제 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선생님을 또는 선생님간 ‘○○쌤’이나 ‘○○님’ 등으로 부르거나, 반바지나 슬리퍼 착용을 시행하는 학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문화 개선 방안은 탈권위적 조직문화 확산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발맞춰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취지라고 시교육청은 부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교권 추락이 크게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학폭 문제 등으로 황폐화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의 정신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고, 호칭 문제만 제기되어 선생님들에게 우려를 자아내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 시대에 관계의 평등성이라는 가치가 널리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더욱 평등한 관계를 구현하는 생활문화개혁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장원교육 미혼모 등에 3억 상당 도서·교구 기증

종합교육기업 장원교육이 지난달 3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 열매)에 3억 원 상당의 도서와 교구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장원교육은 영유아 기관용 프로그램 ‘꼬꼬마스쿨’, 통합교육 프로그램 ‘장원방과후’ 등 자사 인기 학습 도서와 교구 19만여 개를 전달했다. 기부된 교육 도서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아동, 청소년과 미혼모 가정 등 교육 소외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원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작해 6년째 서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자사 교육 콘텐츠를 기부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기부금액은 총 7억5270원에 달한다.

문구식 장원교육 대표는 “더 많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교육 나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호남대 한국어교육원 ‘한국어 현장실습’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17일 호남대 한국어교육원과 ‘한국어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9일 현장실습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방성원 대학원장 겸 한국어문화학과 학과장, 김지형 기획재정처장, 장미라 글로벌한국학 전공 주임교수가 참석했으며, 호남대학교 운영 한국어교육원 원장이 참석했다.

앞선 협약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와 대학원 글로벌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호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 현장을 직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호남대 한국어교육원이 지난 12월 17일 ‘한국어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접 참관하고 한국어교육원의 전문 한국어 교원에게 현장실습 지도를 받게 된다.

경희사이버대 방성원 대학원장은 “호남지역에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용수 기자

비상교육 잉글리시아이 학부모 대상 전국 에듀콘서트

교육문화기업 비상교육의 초·중등 영어 학원 브랜드 잉글리시아이가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를 위한 ‘에듀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화두로 지금의 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자녀 교육 방법과 영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에듀 콘서트는 오는 9일 서울(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을 시작으로, 16일 부산(벡스코 컨벤션홀), 3월 16일 대전(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 3월 23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다. /한용수 기자